

---

# 2022년 제8호 방송심의보고서

---

2022. 2. 18. ~ 2. 24.



한국정책방송원  
KTV 국민방송

프로그램	톡톡 사이다 경제		
방송일자	2022. 02. 18.	시청률	0.000

### 【총 평】

‘1월 취업자 113만 5천 명 증가, 고용 실질 개선 전망은?’에서는 1월 연령별 고용 현황과 업종별 고용 상황 변화를 알아보았다. 특히 고용 지표 등을 통해 일자리의 실질적 개선 현황과 전망 등 우리 경제의 전반적 흐름을 파악하고 고용 개선의 구조적 설명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이슈는 전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급진적으로 확산세가 늘어나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을 진단했다. ‘알뜰신잡’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보호 서비스 제도를 소개했다, 확진자가 반려동물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최근 모더나의 CEO 스테판 방셀은 코로나19 대유행의 종식이 다가오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진화했으며, 치명률이 줄어들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유럽 등지에서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국내 상황은 초기 방역으로 인해서 아직 전파 고점에 도달하지 않았지만 조만간 우리나라도 확진 속도가 증가하는 추세로 접어들고 이후 일상을 회복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고용 훈풍’을 주제로 지난 1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 5천 명이 늘었으며 이는 지난해 이른바 ‘고용 쇼크’의 영향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2년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는 내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했으며 특히 비경제활동인구가 꾸준히 줄어들고 있어 청년층의 취업률뿐만 아니라 전 연령대 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고용상황 변화를 살펴보면 신산업 중심으로 민간 부문 창출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특히 비대면, 디지털 관련 서비스업이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일제, 상용직 위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등 일자리의 질적 개선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고용의 질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뜰신잡’에서는 ‘코로나 19 확진자 반려동물 임시 보호 서비스’를 소개했다. 코로나19 감염시 지자체별 지원 서비스를 통해서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이 가능하고 지정된 협력 동물 병원에서 임시 수용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보호 가능 기간은 입원 치료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격리 기간 해제일까지다. 비용은 서울시의 경우 무료이지만 경기도는 마리당 1일 3만 5천원이 부과되고 이는 각 관할 시, 군별로 다르다. 반려동물 임시 보호 신청 방법은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통지서를 수신한 후 관할 보건소에 반려동물 임시 보호를 신청한 후 보호소에 입소해 임시 돌봄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 필요시 반려 동물의 백신 접종, 치료 지원이 이어지며 서울시의 경우 사료를 무료로 지원한다.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익한 정보를 소개했다.

프로그램	국민리포트		
방송일자	2022. 02. 18.	시청률	0.025

## 【총 평】

새학기와 신입생 입학철을 맞아 기증받은 교복을 싼 값에 팔아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기부하는 '교복, 착한 가격에 마련하세요.'를 비롯해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알려주는 앱 개발 등 다양한 소재의 정보와 정책 등을 소개했다. 특히 '교복 나눔 장터 호응'은 새 학기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절약 및 재활용 등 캠페인 차원에서 긍정적이었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 2m'는 개 물림 사고가 잇따르는 요즘, 반려견 안전관리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 명을 웃도는 심각한 상황에서 '밀접접촉 휴대폰이 알려준다'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앱을 소개해 주목도를 높였으며, '걸으며 기부하는 두발로'는 건강 증진 및 지역 홍보 등의 장점과 걸음 수에 따라 기부가 가능한 점을 소개해 유익했다.

## 【구성 및 내용】

### ■ 교복, 착한 가격에 마련하세요

광주 북구에 교복나눔장터가 마련되었다. 지역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기증받은 교복을 깨끗이 세탁하여 필요한 학생들에게 판매한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광주시 북구청과 새마을부녀회가 함께 마련한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 ■ '반려견 외출 시 '목줄 길이 2m 이내' 준수

전국의 개 물림 사고는 해마다 2천여 건이 이상이며 반려견의 돌발 행동으로 이웃 간 갈등이 생기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반려견 안전관리 법적 의무화가 시행되었다. 반려견 외출시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며 이미 독일 등 국가에서는 시행되고 있다.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시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 휴대폰으로 '밀접접촉자' 10분 내로 찾아요

코로나19 방역체계가 고위험군에 중점을 두면서 일반인의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는 이전보다 간편해졌다. 이에 개개인의 대처에서 생길 수 있는 공백을 메워줄 앱을 개발했다. 한국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디지털 접촉자 관리시스템은 휴대폰 앱이 확진자와 밀접접촉자를 찾아내 방역당국과 개인에게 정보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시스템이다.

### ■ 지역 명소 탐방하며 기부하는 '착한 발걸음'

지역 명소를 걸으며 기부금을 모으는 '세종의 길 두발로'를 소개했다. 지난 4년 간 회원들은 영평사, 고북저수지 등 지역명소 사진을 SNS에 올리며 세종시 홍보대사 역할을 했다. 1,000km 이상 걸으면 자체적으로 '명예의 전당' 우수회원 자격이 주어지며, 전체 회원 60명 중 5명이 받았다. 작년부터는 '착한 발걸음'을 주제로 1km 또는 1,000 걸음을 걸을 때 마다 회원 각자 100원씩 적립하는 기부 활동도 하고 있다.

프로그램	한류에 빠지다 K컬처TV		
방송일자	2022. 02. 19.	시청률	0.002

### 【총 평】

‘생생 K-컬처’는 90개국에 수출해 BTS급 폭발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출동! 슈퍼왕스’를 중심으로 한류를 이끄는 K애니메이션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전망을 알아보았다.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한류콘텐츠가 지난해 14조 원의 수출실적을 올렸다는 내용으로 시작하며 주목도를 높였으며, 제작자와 함께 해외 인기와 성공요인, 계획 등을 알아본 구성이 K-애니메이션의 현주소와 과제를 파악하기 용이했다.

‘한국을 달리는 데이브의 V-로그’는 판소리 대중화에 앞장서 70년간 판소리를 해 온 국악인 신영희 명창을 찾아 판소리를 체험해 보았다. 태국 팬의 한국 전통음악 관심도를 반영한 영상편지와 판소리 체험으로 구성해 소구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생생 K-컬처’는 애니메이션 ‘출동! 슈퍼왕스’를 기획한 부사장이 출연해 제작 동기와 세계 애니메이션 시장에서의 인기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출동! 슈퍼왕스’는 비행기 친구들이 전 세계를 날아다니며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배달하는 스토리를 담았다. 칠레로 택배를 배달하며 모아이 석상을 만나고, 북유럽 노르웨이에선 신비한 오로라를 보는 등 매회 지구촌의 다양한 문화를 탐방하며 세계 어린이들의 이야기를 담아냈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부사장은 먼 나라에 택배를 전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어 택배라는 소재를 차용했다고 밝혔다. 2014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올해 8년째가 되었고 곧 시즌 6이 방송될 예정이다. 2014년 국내방송과 동시에 미국 스포라이트 채널, 남미 디스커버리 키즈 채널 등에 방송되었고 이탈리아, 스페인을 중심으로 유럽 시장에도 진출하는 등 90여 개국에 방송되었다. 중국 VOD 시장에서는 400억 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 구독자 수는 영문 채널 220만 명, 우리말 채널 150만 명 등 400만 명 정도 된다. 해외진출의 성공요인으로선 전 세계에 택배를 배달하러 다니는 소재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흥미를 생기게 만들고 각 나라의 문화와 인사말을 소개하면서 풍습을 습득하게 점을 꼽았다. 또 다른 애니메이션으로 ‘엄마 까투리’를 소개했다. 숲 속의 다양한 동식물, 자연과 교감하며 평범아리 4남매의 다양한 성장스토리를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으로 동화를 원작으로 하여 제작되었다.

‘한국을 달리는 데이브의 V-로그’는 한국 전통 판소리를 배우고 싶다는 태국 팬의 해외영상 편지를 소개한 후 데이브가 국내 판소리 명창 신영희 선생님을 찾아 판소리를 체험했다. 신영희 명창의 집 안에는 전통적인 물건과 상장, 훈장 등이 가득하다. 신영희 명창은 판소리에 대해 설명한 다음 데이브에게 판소리 ‘진도 아리랑’을 가르쳤다. 이어 춘향가 중 옥중가를 불러주며 판소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소리가 주는 차별성과 우수성을 느낄 수 있었다.

프로그램	살어리랏다		
방송일자	2022. 02. 19.	시청률	0.199

### 【총 평】

‘골목이 데려다 줄 거예요’편에서는 충남 공주 구도심의 오래 된 골목길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는 부부를 소개했다. 대학에서 법학을 가르치던 남편은 27년 전 공주의 한 대학으로 발령을 받아 내려오게 됐는데, 지금은 이 곳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살아가고 있다.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서울보다 공주가 더 친근해졌고 두 사람은 10년 전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지금의 한옥을 발견해 첫 눈에 반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964년 어느 가장이 아내와 세 아이를 위해 정성을 다해 지은 집은 그렇게 부부의 손길을 거쳐 재탄생했다. 오랜 내공으로 빚어진 솜씨를 바탕으로 찻집과 초콜릿 공방으로 탈바꿈한 이 곳 덕분에 오래된 골목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 【구성 및 내용】

충남 공주의 한 오래 된 골목길에서 세월이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오래된 철문을 열고 들어서면 넓은 마당을 품은 한옥에서 부부가 찻집을 운영하고 있다. 남편이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충청남도 공주로 이주한 부부는 27년째 공주에서 살아오면서 어느덧 공주를 고향처럼 여기게 됐다. 그러던 중 10년 전 골목길 끝에 자리한 오래된 집을 보고 첫 눈에 반해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 집을 수리해 찻집으로 만들었다. 1964년 어느 가장이 아내와 세 아이를 위해 정성을 다 해 지은 그 집은 서툰 솜씨가 그대로 보였지만 부부는 그 집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복원해서 다시 새로운 삶을 덧입히기로 결정했다. 부부가 만든 찻집은 젊은 사람들, 가족들도 찾아와 차를 마시고 쉬는 공간이 되었고 길고양이들도 편하게 마당으로 들어와서 밥을 먹고 나른한 오후를 즐긴다. 부부의 찻집이 문을 연 지는 올해로 9년째인데 찻집 안뜰에는 남편의 작업실이 있다. 섬세한 수작업에 매료돼 초콜릿 만드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남편은 오래 전 월남전에 참전한 아버지가 보내주셨던 초콜릿의 맛을 잊지 못해 그 맛을 쫓다가 공방을 열게 되었다. ‘행복은 초콜릿처럼 작은 기억들이 촘촘히 쌓여진 것’이라는 주인공의 철학을 전해 인상 깊었다. 그의 초콜릿은 아내와 손님들을 기쁘게 만들어준다. 부부의 찻집이 문을 연 후 이 골목의 풍경들이 새로워지기 시작했다. 원도심 재생 프로그램들이 생기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고, 인근의 빈 집에도 예술가들이 귀촌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또 찻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부부는 크리에이터, 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아지트를 만들고 있다. 부부는 경제적 수익을 생각하면 돈을 들어서 수리하는 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본인들이 생각하는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부부가 마련한 공간을 통해서 동네가 조금 더 아름답고 더 생기 있게 변화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 옛 것의 아름다움을 알고 그 힘을 믿고 있는 부부를 통해 방향을 잃지 않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삶의 미학을 전했다.

프로그램	여러분의 북마크		
방송일자	2022. 02. 20.	시청률	0.121

### 【총 평】

‘친북’에서는 최근 선글라스와 점퍼 차림으로 나타난 김정은 위원장의 패션 변화에 따른 정치 성향을 분석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북한의 상황에 따라 할아버지인 김일성 위원장과 아버지인 김정일 위원장의 패션을 따라하는 김정은 위원장을 통해 한 국가로서 체제를 이끌어 가기 위한 노력을 살펴보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패션을 따라하는 의도는 북한 주민의 민심 달래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경제난 속에서 북한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슈텔링’에서는 재일교포 3세출신 이슈텔러가 출연해 재일 교포 사회의 특수성과 조선 학교의 운영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설득력을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친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패션 변화에 따른 북한의 현재 상황과 권력 구조를 사실감 있게 설명했다. 지난 2월 12일, 평양 화성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현장에 김정은 위원장이 선글라스와 카키색 점퍼 차림으로 등장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0회 생일인 광명성절을 기리기 위해 아버지 패션을 따라하고 있다고 추측했다. 김일성 주석 때에는 북한 경제가 호황기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통치를 시작하자마자 북한이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주민들을 다독이는 차원에서 서민적으로 보이는 점퍼를 입고 다니면서 현지 지도하고 주민들을 위로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아버지의 모습보다는 좀 더 밝게 보이는 할아버지를 따라했으나, 10년을 통치해 보니 북한 경제가 나아지지 않아 아버지의 심정을 이해하고 주민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차원에서 점퍼를 입고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경제난 속에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될 수는 있으나 가치관을 예단하면 안 되는 북한 체제의 특성상 코로나19 3년차에 접어든 북한이 나름의 방식으로 자신감을 회복하며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슈텔링’은 재일 교포가 이슈텔러로 출연하여 조선학교 학생으로 경험한 북한의 현실과 한반도 관계를 설명했다.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인 모두의 국적이 일본이었지만 해방 직후 일본 국적이 박탈되었고 당시 한반도는 정권 수립 전이라 일본은 이들을 조선이라는 국적으로 지정했다. 재일교포의 98%는 한국 출신이라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했지만 북한을 더 지지하는 조총련 사람들은 조선 국적을 유지중이다.

조선학교는 해방 직후 국어 강습소로서 세워져 태극기를 달고 관련 교육을 진행했으나 그러나 재일교포 사회에서도 민단과 조총련으로 갈라지면서 북한이 조선학교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에 여전히 북한의 영향하에 있다. 모든 교육은 북한식으로 진행되어 김일성 혁명 역사 등 사상교육이 이뤄지며 교실마다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있다. 다만 최근에는 조선학교에서 초상화 대신 유화를 걸어두는 곳이 많아졌다.

프로그램	라떼의 정석, 끈대할매라구요?		
방송일자	2022. 02. 20.	시청률	0.121

### 【총 평】

‘나는 보호종료 아동입니다’는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져 만 18살에 보호 종료 아동이 된 주인공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시설 아동으로서 운동을 하며 겪은 어려움, 친어머니와 간신히 연락이 됐지만 이후 끊어지게 된 사연 등 어려움을 토로했다.

‘봅슬레이 선수 강한’에서는 봅슬레이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주인공이 봅슬레이를 선택하게 된 사연, 국가대표로 선발돼 경험한 선수촌 이야기, 부상으로 인한 어려움 등을 전했다. 앞으로 다시 국가대표에 선발돼 올림픽에 출전해 메달을 따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이 몰입도를 높였다.

### 【구성 및 내용】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동계 스포츠인 봅슬레이 선수에 도전하고 인생을 개척해내는 도전 정신과 용기를 가진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했다. 태어나자마자 보육원에 맡겨졌던 주인공은 당시 열다섯의 나이로 자신을 낳고 보육원에 보낸 어머니에 대해 지금은 원망보다는 낳아주신 것에 감사하고 있다. SNS를 통해 생모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기로 약속까지 했지만 생모의 개인적 이유로 만남은 무산되었고 그 이후로는 연락이 끊어진 상태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육상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한 운동선수의 길을 선택했다. 이에 주변에서 운동 대신 공부해서 취업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일, 중고등학교 시절 학교 방송으로 ‘보육원에 사는 학생들 교무실로 내려오라’는 말이 방송돼 상처를 입은 일 등을 진솔하게 전했다. 만 18살이 되어 보호소에서 퇴소할 당시엔 부상으로 깁스를 하고 있는 상태였지만 법적으로 퇴소를 할 수 밖에 없어 생활에 필요한 살림도 없이 박스 하나 정도의 개인 짐과 정부의 자립정착금 500만원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다. 주인공은 전혀 지식이 없는 새로운 사회에서 혼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사기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런 경험을 토대로 현재 다른 보호 종료 소년소녀들을 돕는 명예 멘토로 활동하게 되었다. 덧붙여 현재는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개선되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 24세까지 퇴소를 연기할 수 있고, 자립정착금도 지자체에 따라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월 30만원 씩 지급되는 자립 수당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2018년 봅슬레이 선수 모집 광고를 보고 무작정 코치에게 전화를 건 뒤 강원도로 내려간 주인공은 2019년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진천 선수촌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고 맛있는 음식을 비롯해 오직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019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가대표로 선발됐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사연을 전했다. 주인공은 끝으로 다시 국가대표로 선발돼 올림픽에 나가 메달을 따고 싶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프로그램	영상기록 진실 그리고 화해		
방송일자	2022. 02. 20.	시청률	0.149

### 【총 평】

‘돌아오지 못한 20대 - 군 의문사 사건’편은 당시 대학생으로 민주화운동, 노동자인권을 위해 활동했던 대학생들이 강제로 징집되어 고문과 가혹행위 등으로 군부대에서 의문사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재조명했다. 군대에 끌려가 의문사한 민주열사의 경찰 연행, 강제 징집, 고문 가혹행위, 선후배 동향 파악 지시 등 당시에 저질러진 녹화사업의 진상을 피해당사자, 동료피해자, 유족 등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부각했다. 또한 피해 관련자의 증언과 함께 판결문, 의문사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문서, 보안사 존안자료 등 구체적 증거자료를 제시한 점이 설득력을 높였다. 특히 당시 국가의 공권력의 불법행위가 가족과 사회에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점, 역사적 반면교사로 삼을 부분이 무엇인지를 짚은 탄탄한 구성이 메시지 전달력을 높였다. 이 밖에 녹화공작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첫 승소사례가 나오고 서울대가 피해학생 추모비와 동상을 건립한 민주화의 길을 조성하는 등 화해조치가 나온 것을 소개했다.

### 【구성 및 내용】

1982년 성군관대에 다니던 이윤성 열사는 신체검사도 없이 군대에 끌려가 보안대에서 조사받던 중 사망했다. 40년 후 법원은 국가 폭력에 의해 희생당했다고 인정했다. 1982년 11월 3일 광주항쟁 진상규명을 외치는 대학연합시위에 참여해 백골단에 연행되어 경찰서로 끌려갔고 3일 후 강제로 군 입대 후 녹화공작을 받던 중 사망했다. 이외에도 녹화, 선도 공장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1980년 고려대에 입학해 학생운동에 뛰어든 양창욱은 친구 김두황과 함께 1983년 학회연합시위 계획을 세우던 중 서울 성북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과 가혹행위를 받았다. 이후 신체검사도 받지 않은 채 강제 입대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사망했다. 군 입대 4달 만에 친구 김두황의 사망소식을 들었다. 3개월 후 양창욱씨도 과천 대공분실에서 녹화공작을 받았다. 대학졸업 후 노동운동에 헌신했고 김두황씨의 죽음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81년 연세대에 입학한 정성희는 흥사단아카데미 등 동아리에 가입해 활동했으며, 1981년 교내에서 벌어진 시위에 참가했다 연행되는 동료를 구하려다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로 연행되었다. 3일 후 정성희를 포함한 15명이 강제로 군대에 입영되었다. 정성희의 보안사 존안자료를 보면 보안사는 학생운동을 하다 잡혀 온 학생들을 A, B, C 등급으로 나눠 감시했다. A등급으로 분류된 정성희는 군에 입대하자 감시당했으며, 운동권 동료들의 동향 진술을 강요받던 중 최전방 철책초소에서 사망했다.

1984년 서울대에 입학한 최우혁 열사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윤석양 이병이 폭로한 민간인 사찰 대상에 포함되었다가 부대에서 따돌림을 받기도 하다가 결국 분신자살했다.



프로그램	한국판 뉴딜 나의 뉴딜		
방송일자	2022. 02. 20.	시청률	0.123

### 【총 평】

‘자율주행산업의 미래 - 국내 최초 자율주행실험단지 K-City’편은 국내 최초 자율주행 실험단지를 통해 한국판 뉴딜이 어떻게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만들어진 ‘K-City’는 운전자 없이 도착지까지 스스로 주변 환경을 인식해 운행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각종 대응력을 실험하고 문제점을 찾아내 개선하고 있는 우리나라 첫 자율주행 실험단지이다.

자동차 안전 연구원의 주업무가 차량을 안전하게 제작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면 K-City는 안전기준을 만들고 연구하며 안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한 마디로 도로 위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이다. 지난 2021년 10월 이달의 뉴딜로 선정된 K-City를 구축해 내기까지 노력한 연구원과 동반 성장해 가고 있는 스타트업 대표들과 다양한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 【구성 및 내용】

일반 자동차를 개발하고 상용화해 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전 테스트가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안전이다. 자율주행차량은 일반 도시보다 더 엄격한 환경 기준과 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바로 이런 안전기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이 K-City이다. 이곳에는 실제 자율주행 때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의 차량 대응력을 실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K-City의 시험 시설물들은 실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두었고 5개 구역으로 나누어 자동차 전용도로, 도심부, 커뮤니티부, 교외도로, 자율주차시설 등을 마련했다. 또한 실제 운전에서 접할 수 있는 톨게이트나 횡단보도, 신호등, 어린이 보호구역, 비포장도로, 철도건널목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서 자율주행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예측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곳이다.

K-City는 또한 세계 최초로 5G가 연결돼 세계적 수준의 테스트베드 구축에 앞장서고 있으며, 동반 성장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다. K-City는 중소기업, 관련 학과 연구진들에게 무상으로 개방하며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쓰고 있다.

자율주행차량이 개발된 배경은 편의보다는 안전이다. 자동차 사고의 95~98%가 사람의 실수에서 발생한다는 점에 착안해 사고를 예방하자는 목적으로 만들어졌고 따라서 완전한 자율주행차량이 나오기 까지는 앞으로도 오랜 시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K-City를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과 대학 그리고 학생들이 자율주행차량의 개발에 있어서 큰 도움을 얻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108개 기관이 약 23,000회를 이용해 약 46억 원 이상 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자율주행차량 연구는 선진국 수준이며, K-City의 눈부신 발전이 기대된다.